

섬유제조·패션ISC

섬유패션산업의 업사이클링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재사용 또는 재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단순 재활용 X, 더 높은 부가가치 O)

다운사이클링

가치하향형 재활용
폐기물 단순처리·재활용
화학적 변화
낮은 에너지 효율성
고비용

업사이클링

가치상향형 재활용
디자인·첨단기술 접목
물리적 변화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저비용



업사이클링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에서도

환경을 저해하던 오염물질을 활용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의 업사이클링은
기업이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환경 보전, 자원 재활용 등을 실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연순환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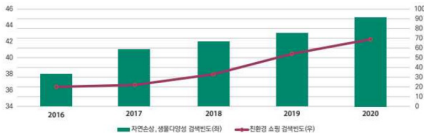


섬유패션산업 업사이클링 소비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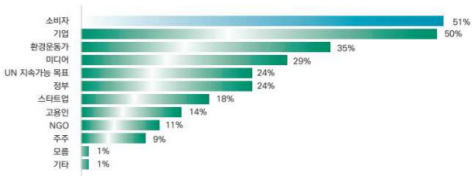
지속가능패션 소비자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EIU, Google Trends, 2022. 9.)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이슈를 이끄는 주요 주체> (The Economist, 2020.10.)



섬유패션산업 업사이클링 소비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업사이클링 제품의 특징

업사이클링 제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재질의 제품으로
비정형의 특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섬유패션제품의 주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하죠.

- 폐기물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재료가공 및 디자인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독창성과 희소성이 부여되며, 동시에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무형의 이미지가 제품에 부여됨으로써 기존 제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가방 혹은 파우치 등의 패션잡화가 중점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해외 섬유패션산업 업사이클링 추진현황을 볼까요?

업사이클링시장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디자이너 형제 마커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이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프라이탁’ 등장
- 해외 업사이클링산업 시장규모는 세계적 업사이클링 업체인 ‘프라이탁(Freitag)’ 매출(약 5,000만 달러)의 3배로 추산해 약 1억 5,000만 달러 추정 (2014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 세계 업사이클링 시장규모는 약 2,0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 (2020년 기준, 기획재정부)



해외 업사이클링 패션기업

유럽

- **프라이탁** : 폐기 트럭 방수포 이용한 가방 (25개국 309개 매장 보유)
- **비온드 레트로** : 업사이클링 의류 (영국·스웨덴에 매장 보유)
- **루비문** : 버려진 수영복 및 신축성 의류 조합한 수영복·운동복 제작
- **레번** : 탄소발자국 시형, 폐열풍선 이용한 의류
- **마린 세르** : 시즌테마를 사회적·환경적 이슈로 채택
- **마틴 마르지엘라** : 재사용 소재 및 낡은 액세서리 사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 **정기 스타일** : 자선단체 매장의 낡은 옷과 재고 의류 사용 (영국 외 11개국 유통)

미국

- **테라사이클** : 폐자원 수집, 상품화, 유통 (22개국 5만여 곳 네트워크 구축)
- **리덴** : 빈티지 리바이스진만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 제작
- **제로 웨이스트 다니엘** : 자투리 옷감이나 인류생산 폐기물로 의류·액세서리 제작

일본

- **모데코** : 바닥재, 소방복, 자동차 안전벨트 등 폐기소재로 소형 에코상품 개발



국내 섬유패션산업 업사이클링 추진현황을 볼까요?

**국내 업사이클링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20억 원→2020년 40억 원'으로
2배 성장했습니다.**

- 재활용률은 2009년 기준 81.7%(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높지만, 업사이클링 재활용 통한 제품화율은 19%로 낮음
- 서울시는 2030년까지 업사이클링 기업을 1,000개 육성하겠다고 발표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래코드(RE;CODE)'는
유럽(독일·영국·프랑스)에 진출해 주목받는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 **래코드** : 폐의류 해체·재조합해 독특한 디자인의 희소성 제품으로 재생산
- **리블랭크** : 소비자 중고의류 수거하거나 여성복 브랜드의 재고의류로 제품 생산
- **터치포굿** : 전국 25개 업체와 협약 통해 폐현수막 공급 받아 더스트백 제작
- **에코파티 메아리** : 재사용 어려운 의류 공급받아 새 디자인 제품 생산
- **세이지 디자인** : 폐기용 군용품(낙하산)이나 고장난 시계 등으로 가방·액세서리 제작
- **원 오브 어 카인드** : 70~80년대 일본·영국의 패턴물 원피스 재활용해 패션잡화(가방)·액세서리(팔찌) 제작
- **더 나누기** : 기업이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 기부받아 패션잡화로 제작
- **리나시타** : 폐의류 재활용해 셔츠백, 자켓백 등 생산
- **패롬** : 옥외 간판에 사용되는 플렉스 원단 활용해 수작 제품 생산



국내 업사이클링 전문인력 수요·공급 현황은 어떨까요?

수요

- 글로벌 친환경시장은 2030년 약 10조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가치와 약 4억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 국내 업사이클링 산업의 시장 성장 및 사업 확장이 더딘 이유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산업 활성화 위해서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문인력 확보로 안정적 기업 운영 및 수익체계의 불안정성 해결해야 합니다.
- 각각의 공정에 필요한 기술 보유한 기관 및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

- 국내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학의 섬유패션 관련 학과 110여 개에 달하지만, 업사이클링 패션제품 관련 체계적 교육 담당하는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 민간 사설기관 및 문화센터 등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통한 리폼 디자인의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사이클링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까요?

전문교육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폐기물 재료 수급,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산업 전 분야 아우르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소재 스페셜리스트

- 폐원단 또는 폐의류 성분 확인해 업사이클링 가능 소재 선별 및 분류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

- 상품으로 판매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선순환 환경 개념 이해
-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작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 필요

업사이클링 유통 전문가

- 희소성의 가치 높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 특성 이해하고 안정적인 사원 확장 지원

업사이클링 교육자력 전문가

-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개선하고, 부정적 인식을 환경적·사회적 가치 위한 긍정적 대안으로 소비자의 사고전환 이끌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섬유의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섬유제조와 패션을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소재 개발 및 업사이클링 디자인 분야는
별도 소분류와 세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섬유제조·패션ISC도
섬유패션 업사이클링 관련
NCS 능력단위 및 직무 개발을 논의해야 합니다.
NCS 학습모듈을 개발해
특성화고·전문대 등의 섬유패션 교육과정 개발을 돕고
업사이클링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